

“나와 너, 이해 높여 건강한 금속노조 만들어요”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마음 돌봄 수련회 ... 조합원들, 해고자 치유사업 주문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함께 나눴다.

노조는 10월 6일과 7일 충북 단양 노조 교육연수원에서 ‘건강한 조직과 소통을 위한 마음 돌봄 수련회’를 열었다. 2019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인 마음 돌봄 수련회에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KEC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등 다섯 곳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백일자 문화국장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우선 자기 자신과 동지에 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음 돌봄 수련회를 기획했다” 라며, 이들 동안 굳어 있는 생각을 깨고 노조가 가진 공동체의 힘을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백일자 국장은 “특히 올해는 부당해고와 불법 파견, 복수노조 탄압 등 투쟁사업장 동지들 중심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만큼,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라고 설명했다.

6일 첫날 첫 시간으로 ‘숲 치유 산책’ 을 마련했다. 윤금란 노조 총무실장이 수련회 참가자들을 노조 교육연수원 앞 소선암자연휴양림으로 데리고 가 숲 해설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숲길에서 나무·꽃 소리를 듣고 사진을 찍는 등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윤금란 실장은 숲 해설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바쁜 일상과 투쟁에 쫓기다 보니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들여다보고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며 “숲은 사람에게 안정적이고 깊은 위안을 준다. 숲 산책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만들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두 시간가량 숲에서 보낸 조합원들은 첫날 두 번째 순서인 ‘에니어그램’ 에 참여했다. 성격 유형 검사인 에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아홉 개의 점이 있는 그림’ 이라는 뜻이다. 사람 성격의 근간을 크게 장(배, 본능) 중심, 가슴(감정) 중심, 머리(사고)로 분류하는 에니어그램은 성

격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 간의 상호 역학관계를 알아볼 때 활용한다.

이날 ‘에니어그램’ 진행을 맡은 박우옥 <다시봄 심리치유센터> 활동가는 “에니어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식하다 보면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박우옥 활동가는 비슷한 상황의 동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 응어리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 주고받으며 독려했다.

조합원들은 강사로부터 에니어그램 아홉 가지 성격 유형과 각각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81문항으로 구성된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각자 유형을 확인했다. 조합원들은 자신과 다른 유형들과 대화를 나누며 차이를 알아가고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만들었다.

에니어그램 순서를 마친 조합원들은 “상대방 성향을 알게 되니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과거 행동에 관한 의문이 풀렸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말을 건네야 할지 해결 방법을 조금 알 것 같다” 라고 밝혔다.

두 번째 날 수련회 마지막 순서로 ‘토닥토닥, 나와 너, 우리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인생 그래프와 동지 얼굴 그리기를 하며 자신의 금속노조 활동을 돌아봤다. 노조 활동과 투쟁 과정에서 기억 남는 다섯 순간을 다른 참가자

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에게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발표자에게 응원과 지지의 말을 전하며 서로 격려했다.

변주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은 “에니어그램 시간에 상대방에 관해 많이 공감했다. 자신과 동지의 성향을 알고, 서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새삼 깨달았다” 라며 “서진이엔지 부당해고와 원청 현대건설 기계 불법 파견에 맞서 싸운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

다” 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소통과 공감의 장을 계속 열어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노조 마음 돌봄 수련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배성도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해 다녀간 지회 조합원 두 명이 추천해 올해 열 명이 참여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십 년 넘게 해고자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치유의 시간이 절실했다” 라며 “해고자 마음 돌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다음 수련회 때 명상 순서와 숲 치유 산책 개인 시간을 추가 해주길 바란다” 라고 제안했다.

포스코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 한다

금속노조, 역학조사 참여 촉구 ... “포스코 노동자 직업암 포스코 책임”

금속노조는 10월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포스코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과 포스코 직업병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직업암에 걸린 노동자들과 함께 10월 8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에 산재신청을 접수한다.

산재신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업병 실태조사 ▲직업병 코호트(Cohort) 조사 시행과 노동부에 ▲건강 영향평가 진행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포스코 직업암 역학조사 시 노조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직업암 코호트 조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해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번에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을 내는 세 명의 노동자는 30년 이상 포스코에서 석회석 등 원료를 공급하는 작업과 톨 정비 작업, 기계 정비 작업을 하다가 폐암과 다발성 골수 백혈병에 걸렸다. 금속노조는 이 세 노동자 외에 많은 포스코 전·현직 노동자가 악성종괴종, 루게릭병 등 다양한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보호구 없이 일하다 직업암에 걸렸다” 라며 “소수의 노동자가 특이하게 질병에 걸린 게 아니다. 포스코의 무대책, 무지함으로 다수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직업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포스코를 규탄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하루에 노동자가 일곱 명씩 죽는다. 한국은 산재 공화국이다” 라면서 “포스코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이 걸렸는지 모른다” 라며 금속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이제 자본의 산재 은폐는 없어져야 한다” 라며 “포스코가 어느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노조와 같이 조사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제철 관련 모든 사업장이 유사할 것이라며 전체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대로 역학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무용제 도료 ‘집단 피부발진’ 방관

금속노조 “노동부 무용제 도료 사용 중단 명령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

금속노조는 10월 8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무용제 도료 피부발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근본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부에 유해성 무용제 도료 사용 중단 명령을 즉각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노동부는 지난 2월 임시건강검진에서 조선소 노동자 피부발진 원인이 무용제 도료임을 확인했지만, 아직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피부발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며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는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무용제 도료가 유해화학물질이라고 밝혀졌으면 노동부는 당연히 사용금지를 명령하고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지부장은 “무용제 도료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부발진에 계속 걸린다. 노동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대재해로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 한정에 환경부 장관이 8월 2일 조선소 12개 사업주에게 전하는 공동서한문을 발표했다. 서한문에 노동자들에게 심



각한 피부발진을 발생시키는 무용제 도료를 사용하지 말고, 안전한 도료로 대체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달리 노동부는 ‘도장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건강보호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무용제 도료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급적이면 도장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한 상황에서 작업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문제점이 밝혀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선소들은 계속 무용제 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김광식 노조 광주 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삼호중공업 무용제 도료 관련 상황을 전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무용제 도료를 사용했다.

김광식 노안부장은 “노동자들에게 피부발진 증상이 발생하고 재해

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체물질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을 짓밟는 것이라면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박세민 노안실장은 “금속노조는 아홉 달 동안 무용제 도료 사용 중단 명령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직업병에 몰아넣는 잘못된 행정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용제 도료 사용을 뿌리 뽑을 때까지 조선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노동자 집단 피부발진 중대재해 규정 ▲중대재해 규정에 따라 대책 수립 ▲안전한 물질 사용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